韓國心理學會誌 : 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1996. Vol. 9, No. 1, 198-216.

아동의 내외 통제성 발달에 관한 요인분석적 연구[1)]

최 경 숙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에서는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및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내외 통제 지각의 발달과정을 보고자 하였다. 내외 통제성 측정도구에는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척도와는 다르게 내외 통제 지각의 단일차원을 넘어 "모르겠다"는 내용의 문항들과 영역별로도 구분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요인분석결과 "모르겠다"는 요인이 국민학교 5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증가되면서 설명비율이 낮아지기는 하나 일관되게 중요요인으로 추출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내외 통제성 측정에서 "모르겠다"는 차원이 포함되므로서 발달과정을 좀더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국민학교 5학년에서는 내적 통제 지각 요인이 설명비율이 높았다가 중학교 1학년에 가면 외적 통제 지각, 중학교 3학년에 가면 다시 내적 통제 지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중학교 1학년에서의 외적 통제 지각이 높은 것은 중학교 1학년이라는 우리나라 교육 및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자신과 타인의 행동 및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난다. 인과적 원인 지각에 대한 이론의 하나가 내외 통제 신념으로 Rotter(1966)가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개념화 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통제 신념이란 강화에 대한 기대변인 중의 하나로서 행동과 그에 따르는 강화간의 인과적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를 가리킨다. 즉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그에 따르는 강화를 자신의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지각할 때 내적 통제 신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으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자신의 통제밖에 있다고 지각할 때 외적 통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통제의 지각이 인간의 적응과 학습에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어 왔다. 내적 통제 신념을 가졌을 때 작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찾는 경향을 보였으며(Davis & Phares, 1967), 외적 통제 신념을 갖고 있을수록 도전을 받아들이는데 더 무기력하며 (Pittman, 1979), 좌절에 대한 반응,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또한 내외 통제 신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Nowicki & Brissett, 1973; Houston, 1972).

1)본연구는 1993년 성균학술연구비 지원으로이루어졌음

성인 대상의 연구에서만이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도 내외 통제 지각이 아동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내적 통제 신념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이 복잡하고 논리적인 문제를 푸는데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James, 1965), 성취동기 및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천, 1987; Sherman & Hoffman, 1980). 더 나아가 내적 통제 지각이 우울, 자아존중감 및 자기 유능감과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박수남, 1990; Abraham & Cristopherson, 1985).

이상에서와 같이 내외 통제에 대한 지각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짐에 따라 아동이 발달하면서 내외 통제 지각의 변화가 생기는가, 변화한다면 어느 정도 변화하는가가 연구 대상이 되었다. 즉 연령에 따라 내외 통제에 대한 지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하여 탐색하게 되었다.

Lefcourt(1976)에 따르면 연령이 통제 지각의 변화의 가장 명백한 근원이라고 보고, 연령이 증가되면서 자신이 자신의 관련 사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즉 아동의 내적 통제 신념은 성숙해가면서 강해진다고 보았다. Brim (1974)도 Lefcourt와 같은 입장으로 초기 아동기 이후 청소년기를 넘어서까지 증가한다고 보았다. Bialer(1961), Crandall등 (1965), 또 Penk(1969)등도 Lefcourt와 Brim의 견해와 일치하는 내적 통제 신념의 발달적 증가를 입증하였다. Nowicki와 Strickland(1973), Nowicki 와 Duke(1974) 또한 내적 통제 지각이 연령과 함께 증가한다는 확신을 갖고 자신들의 척도의 타당도의 기준으로 연령에 따른 증가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내적 통제 지각이 연령과 함께 증가한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어온 반면 내적 통제 지각이 실제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할 것이라는 이론과 이를 검증한 연구도 제시되어 왔다. Piaget와 Inhelder (1975)는 아동들이 자신의 통제 능력을 과잉평가하고 있는 예를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다. 즉 어린 아동의 추리는 어느 욕망(desire)이든 사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고 나이와 함께 점차 세상의 많은 일들이 외적으로 통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보았다. Weisz(1980, 1981; Weisz & Stipek(1982)) 또한 Piaget의 연구방법과는 다른 실험과 면접법을 통해서 어린 아동들이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의 통제를 넘어선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연령과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기타 연령이 증가되면서 내외 통제 지각에 따른 변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의 하나의 방향이 아닌 혼합된 결과를 보인 연구들도 있는데 Crandall 등(1965)의 연구와 Newhouse(1974) 연구에서는 부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내적 통제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긍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내적 통제가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민학교 이후 발달과정에서 내적 통제 지각의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연구들도 보고되어 왔다(Fergurson and Kennelly, 1974; Shriberg, 1974; Lifshitz and Ramot, 1978; Taub and Dollinger, 1975).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통제 지각의 변화를 다룬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보고된 연구를 보면, 이훈구(1980)는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내외 통제 척도를 번안하여 발달과정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내적 통제 지각이 증가되었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조현주(1981)와 김성희(1990)의 연구에서는 국민학교 3학년, 5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내외 통제 지각을 측정한 결과 연령의 증가와 내적 통제 지각은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반면 서선주(1988)의 연구에서는 국민학교 4학

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내외 통제 지각을 측정한 결과 두 연령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선미(1994)도 Nowicki와 Strickland(1973)가 개발한 아동용 내외 통제 척도를 수정 제작하여 사용하여 국민학교 3학년과 국민학교 6학년의 내외 통제 지각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내외 통제 지각의 발달경향에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특히 거의 모든 연구에서 Nowicki와 Strickland (1973)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단일화된(bipolar) 차원으로 되어 있어 연령의 증가와 함께 내적 통제 지각이 증가하는지 또는 외적 통제 지각이 또는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지에 대한 것을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Connell(1985)은 내적 통제 지각과 타인 통제 지각(powerful others) 그리고 통제 소재 지각이 확실하지 않은 무지(unknown) 통제 지각으로 나누었다. 무지 차원을 포함시킴으로서 아동이 자신의 성공실패를 통제한다고 믿는 내외 통제 속성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얼마나 모르는 지에 대한 발달적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제 지각에 대하여 일반, 인지, 사회, 신체 영역으로 대별하여 영역별 통제 지각의 발달과정을 보고자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외 통제 지각의 발달과정을 보기 위하여 Nowicki와 Strickland 척도에서 측정되는 단일차원만이 아니라 Connell(1985)이 포함했던 "모르겠다"는 무지 차원 그리고 영역별 문항을 포함시켜 요인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즉 연령에 따라 요인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내외 통제의 단일차원을 넘어서 무지 차원 및 영역별 문항이 요인구조로 밝혀지는지 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 요인구조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방 법

피험자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울의 비교적 중류층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속하는 Y 공립 국민학교 5학년 358명(남 194명, 여 164명), K 중학교 1학년 446명(남 227명, 여 219명), K 중학교 3학년 426명(남 206명, 여 220명)으로 총 남학생 627명, 여학생 603명 전체 1230명이었다.

척도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먼저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의 40문항, Bialer(1961)의 Children's Locus of Control Scale의 23문항, Connell(1985)의 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Control의 48문항을 통합한 총 111개 문항에서 중복되는 10개 문항을 제외한 101개 문항을 번안하였다.

Waters등(1990)은 예-아니오의 양분된 응답양식의 설문척도는 상관행렬에 문제를 갖고 있어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Nowicki와 Strickland (1973)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의 4점 척도로 그렇다(1), 그런 편이다(2), 그렇지 않는 편이다(3), 그렇지 않다(4)로 답할 수 있도록 하는 응답반응 양식을 사용하였다.

척도실시 및 문항분석

이상과 같이 구성된 101개 문항을 국민학교 5학년 아동 13명에게 예비실시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분명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 다음 1994년 10월 약 한달간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6명이 수정된 10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피험대상 1230명에게 실시하였다. 한 학교

의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시할 때는 한 학급 단위의 집단으로 한 사람의 실시자와 한 사람의 보조자가 들어가 목적을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실시 소요시간은 30분 내외였다.

무응답 문항이 많거나 성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12명의 설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문항의 양호도 분석을 위해서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상대도수 분포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평균이 1.5미만이거나 3.5이상되고 표준편차가 0.5미만이 되거나 상대도수분포로 보아서 한 응답에 60%이상 치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3개 문항이 제외되었다(부록1). 각 문항의 전체 점수와의 상관이나 변별도 분석은 본 연구의 척도 성격상 즉 내외 통제의 영역별 분석이기 때문에 전체 점수와의 관계는 적용될 수 없었다.

요인분석

총 101개 문항에서 문항분석을 통해 문제가 된 3개 문항을 제외한 98개 문항으로 다차 요인분석을 하였다. 다차 요인분석의 일차 분석에서는 98개의 문항이 요인구조를 보기에는 너무 많아 문항을 줄이기 위한 작업이었고 이차 요인분석 결과로 요인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1차 요인분석에서는 전체 피험 아동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Varimax회전을 하였다. 그 결과 요인고유치 1.0이상인 전체의 77% 설명되는 8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형태계수가 0.3이상인 57개 문항이 선정되었다(부록2).

이차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으로 주축분해법을 적용하여 Varimax회전을 하였다. 요인추출기준은 스크리검사, 누적분산비율과 요인신뢰도 계수 및 해석가능성을 적용하였다. 해당문항은 형태계수행렬에서 형태계수가 0.3 이상인 경우만이 선정되었다. 요인별 신뢰도로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값을 구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내외 통제 지각에 단일차원을 넘어서 "모르겠다"는 무지차원이 포함되는지 또 영역별로 통제 지각이 구별되는지와 연령이 증가하면서 요인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모두 합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결과를 본 다음 학년별로 요인분석결과를 보고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였다.

전체 아동에 대한 결과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요인Ⅰ은 모르겠다라는 무지요인이었고 요인Ⅱ와 요인Ⅲ은 내적 통제 지각 요인이지만 잘못된 결과가 내 잘못이다라는 내용이 요인Ⅱ로, 자신이 원하는대로 세상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요인Ⅲ으로 구별되어 산출되었다.

표1. 전체 남녀 아동에 대한 요인구조

( ) 형태계수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α=.78	α=.75	α=.72	α=.74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96(.57)	94(.64)	76(.53)	95(.61)
90(.57)	73(.63)	58(.49)	84(.55)
99(.56)	83(.56)	45(.49)	92(.52)
85(.56)	88(.47)	42(.48)	65(.52)
93(.51)	101(.46)	60(.47)	74(.52)
75(.51)	64(.44)	48(.45)	72(.50)
78(.49)	43(.40)	47(.44)	
63(.42)	70(.39)	10(.38)	
66(.40)	79(.32)	97(.38)	
69(.39)		34(.36)	
100(.34)		30(.30)	
27(.33)			
고유치 6.00	3.32	2.95	1.24
설명비율 .37	.20	.18	.08
누적설명 .37	.57	.75	.83

표2. 전체 남아에 대한 요인구조

( ) 형태계수

요인 I	요인 II	요인III	요인IV
α=.75	α=.77	α=.74	α=.64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73(.62)	90(.60)	95(.61)	45(.52)
94(.60)	85(.57)	84(.56)	58(.50)
83(.60)	96(.55)	72(.51)	60(.50)
88(.51)	99(.51)	92(.49)	42(.49)
101(.45)	75(.51)	74(.48)	76(.40)
64(.43)	93(.44)	65(.45)	10(.36)
79(.40)	78(.43)		30(.35)
70(.39)	66(.43)		86(.33)
43(.37)	63(.40)		47(.33)
	69(.39)		
	27(.32)		
고유치 5.50	3.44	2.94	1.42
설명비율 .31	.19	.16	.08
누적설명 .31	.50	.66	.74

표3. 전체 여아에 대한 요인구조

( ) 형태계수

요인 I	요인 II	요인III	요인IV
α=.77	α=.76	α=.68	α=.20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96(.66)	94(.70)	76(.52)	65(.62)
75(.56)	73(.66)	60(.51)	84(.59)
90(.55)	64(.53)	42(.50)	95(.57)
93(.52)	83(.51)	48(.48)	92(.56)
63(.51)	101(.47)	58(.47)	74(.51)
85(.51)	70(.37)	10(.47)	72(.48)
99(.50)	38(.36)	45(.45)	
78(.44)	43(.36)	97(.45)	
100(.42)	5(.32)		
69(.41)			
27(.32)			
고유치 6.84	3.31	3.09	1.63
설명비율 .34	.17	.15	.08
누적비율 .34	.51	.66	.74

요인IV는 힘있는 다른 사람의 통제로 지각하는 외적 통제 요인이었다. 전체 남아에 대한 요인구조는 표2, 전체 여아에 대한 요인구조는 표3과 같다. 남아의 경우 잘못된 결과가 자신의 잘못으로 지각하는 내적 통제 지각이 요인 I 로 나왔으며 무지요인이 요인II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통제를 지각하는 외적 통제가 요인III으로, 자신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는 내적 통제는 제 4 요인으로 산출되었다. 이와는 다르게 여아의 경우 남녀 전체 아동에 대한 요구구조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요인 I 은 무지요인, 요인II는 잘못된 결과에 대한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보는 내적 통제 요인, 요인III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는 내적 통제 요인 그리고 요인IV는 다른 사람에 의한 외적 통제 요인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모르겠다"는 무지차원은 본 연구대상 아동에게서 분명하고 중요한 요인으로 산출되고 있다.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결과와 남녀별 요인분석결과 모두에서 무지요인이 요인 I 또는 요인II로 나왔다. 그러나 영역별 즉 일반, 인지, 사회, 신체 영역에 따른 요인구별은 본 연구의 요인 산출 결과 뚜렷한 구별이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별로는 요인이 구분되지 않았으나 내외 통제 지각이 단일차원의 양분이 아니라 내적 통제 지각이나 외적 통제 지각이 사전 내용에 따라 세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잘못된 결과냐 좋은 결과냐에 따라 내적 통제 요인이 구별되고 있으며 결과와 관계없이 내가 마음먹은대로 할 수 있다는 내적 통제 지각은 별개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적 통제 지각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 의한 외적 통제 지각과 자신이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식의 외적 통제 지각은 분명히 구분되어 산출되었다.

국민학교 5학년 아동에 대한 결과

국민학교 5학년 전체 아동에 대한 요인분석결과가 표4에 제시되어 있으며 표 5와 표 6은 국민학교 5학년 남아 및 여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다. 국민학교 5학년 전체 아동에 대한 결과에서 요인 I 은 모르겠다는 무지요인이었으며 내적 통

표4. 국민학교 5학년 전체 아동에 대한 요인구조

( ) 형태계수

요인 I	요인 II	요인III	요인IV	요인V	요인VI	요인VII
α=.77	α=.71	α=.74	α=.27	α=.69	α=.60	α=.56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99(.65)	83(.64)	46(.65)	58(.55)	95(.61)	47(.59)	41(.66)
96(.62)	73(.61)	81(.58)	16(.52)	72(.61)	76(.56)	39(.45)
85(.62)	94(.60)	52(.53)	45(.48)	74(.53)	34(.47)	37(.37)
90(.62)	88(.59)	38(.49)	23(.36)	65(.46)	48(.45)	
75(.58)	64(.52)	101(.48)	100(.36)	92(.39)	97(.34)	
93(.51)	79(.48)	32(.46)		84(.45)		
63(.45)	43(.48)	54(.40)				
78(.44)						
69(.43)						
27(.40)						
66(.36)						
고유치 8.13	4.27	2.80	1.59	1.19	1.07	0.98
설명비율 .33	.17	.11	.06	.05	.04	.04
누적비율 .33	.50	.61	.67	.72	.76	.80

표5. 국민학교 5학년 남아에 대한 요인구조

( ) 형태계수

요인 I	요인 II	요인III	요인IV	요인V	요인VI	요인VII
α=.78	α=.74	α=.16	α=.35	α=.54	α=.57	α=.52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94(.71)	85(.67)	5(.60)	76(.63)	72(.74)	46(.69)	16(.54)
88(.69)	90(.65)	32(.52)	47(.62)	65(.47)	52(.37)	31(.50)
79(.63)	96(.63)	101(.46)	97(.41)	74(.41)	81(.40)	23(.44)
73(.61)	75(.60)	14(.31)	37(.36)			
83(.60)	99(.59)	92(-.40)	34(.38)			
86(.48)	66(.53)	58(-.43)				
38(.47)	27(.52)	48(-.55)				
64(.43)	63(.37)	16(-.36)				
70(.42)	78(.35)					
43(.37)	93(.40)					
54(.31)						
고유치 8.30	4.35	3.11	1.66	1.49	1.29	1.27
설명비율 .27	.14	.10	.05	.05	.04	.04
누적비율 .27	.41	.51	.56	.61	.65	.69

제 지각 요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잘못된 결과에 대한 것은 요인II, 잘된 결과에 대해서는 요인III,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는 내적 통제 지각은 요인VI으로 분리되어 산출되었다. 외적 통제 지각도 힘있는 다른 사람의 통제 지각은 요인V로 내가 해도 소용없다는 식의 외적 통제는 요인VII로 나타났다.

국민학교 5학년 남녀 각각의 결과는 5학년 아동 전체 결과와는 다르게 남자의 경우 잘못된 결과가 내 잘못이다라는 것과 노력하면 나는 잘 할

표6. 국민학교 5학년 여아에 대한 요인구조 ( ) 형태계수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요인Ⅴ	요인Ⅵ	요인Ⅶ
α=.74	α=.72	α=.67	α=.74	α=.43	α=.02	α=.56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64(.69)	75(.87)	81(.70)	95(.80)	41(.77)	45(.68)	47(.77)
73(.69)	96(.65)	46(.66)	74(.61)	37(.40)	48(.36)	34(.41)
94(.66)	90(.48)	52(.57)	84(.54)	39(.33)	14(.35)	76(.35)
83(.57)	99(.46)	101(.47)	72(.54)	11(.33)	16(.30)	
43(.55)	78(.45)	32(.43)	92(.52)		86(.31)	
88(.51)	69(.40)	38(.39)	65(.43)			
70(.50)	93(.30)					
	85(.39)					
고유치 8.69	4.81	3.29	2.27	1.66	1.50	1.35
설명비율 .25	.14	.09	.06	.05	.04	.04
누적비율 .25	.39	.48	.54	.59	.63	.67

수 있다는 것이 함께 내적 통제 지각의 요인Ⅰ로 나왔으나 여아의 경우는 잘못된 결과에 대한 것으로만 내적 통제 요인Ⅰ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요인Ⅱ는 모르겠다는 무지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요인Ⅲ과 요인Ⅳ는 내적 합치도가 낮고 해석이 애매하며 잘된 결과에 대한 내적 통제 지각은 요인Ⅵ으로, 내가 해도 소용없다는 식의 외적 통제 지각은 요인Ⅶ로, 다른 사람에 의한 외적 통제 지각은 요인Ⅴ로 묶였다. 여아의 경우 잘된 결과에 대한 내적 통제 지각이 요인Ⅲ, 다른 사람에 의한 외적 통제 지각이 요인Ⅳ, 내가 해도 소용없다는 외적 통제 지각이 요인Ⅴ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는 내적 통제 지각이 요인Ⅶ로 나왔으며, 요인Ⅵ은 내적 합치도가 낮고 해석할 수가 없었다.

중학생 1학년에 대한 결과

표7, 표8, 표9에 중학생 1학년 전체, 남자 중학

표7. 중학교 1학년 전체에 대한 요인구조 ( ) 형태계수

요인Ⅰ α=.74 문항번호	요인Ⅱ α=.74 문항번호	요인Ⅲ α=.68 문항번호	요인Ⅳ α=.74 문항번호	요인Ⅴ α=.68 문항번호	요인Ⅵ α=.67 문항번호	요인Ⅶ α=.49 문항번호
96(.60)	84(.60)	39(.62)	94(.66)	60(.54)	46(.64)	32(.49)
90(.57)	95(.58)	37(.51)	73(.65)	76(.49)	52(.51)	5(.46)
75(.54)	92(.56)	35(.48)	83(.47)	10(.47)	81(.46)	86(.44)
93(.49)	74(.53)	41(.45)	64(.46)	45(.46)	54(.41)	
85(.49)	65(.51)	31(.44)	101(.44)	97(.46)	38(.34)	
100(.47)	72(.49)	11(.38)	70(.40)	42(.45)		
63(.46)		16(.36)	43(.32)	58(.43)		
69(.35)		14(.30)		30(.38)		
99(.34)				48(.36)		
66(.36)						
고유치 5.58	3.13	2.55	1.45	1.43	1.12	0.9
설명비율 .28	.15	.13	.07	.07	.06	.04
누적비율 .28	.43	.56	.63	.70	.76	.80

표8. 남자 중학생 1학년에 대한 요인구조 ( ) 형태계수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요인Ⅴ	요인Ⅵ	요인Ⅶ
α=.64	α=.68)	α=.64	α=.66	α=.59	α=.62	α=.28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54(.66)	95(.75)	37(.64)	83(.69)	60(.56)	75(.78)	72(.68)
52(.59)	92(.53)	39(.52)	73(.59)	45(.50)	96(.42)	47(.54)
81(.48)	84(.46)	31(.52)	79(.41)	97(.43)	85(.42)	100(.50)
46(.47)	74(.43)	11(.43)	94(.40)	76(.43)	63(.37)	65(.34)
86(.38)		35(.38)	43(.34)	30(.40)	90(.37)	
32(.34)		16(.33)	88(.32)	58(.39)	69(.30)	
70(.32)				42(.38)		
38(.32)						
고유치 5.49	3.58	2.53	1.95	1.55	1.37	1.26
설명비율 .21	.14	.10	.07	.06	.05	.05
누적비율 .21	.35	.45	.52	.58	.63	.68

표9. 여자 중학생 1학년에 대한 요인구조 ( ) 형태계수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요인Ⅴ	요인Ⅵ	요인Ⅶ
α=.74	α=.64	α=.43	α=.54	α=.58	α=.64	α=.52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74(.66)	96(.67)	35(.59)	58(.61)	47(.66)	46(.70)	5(.57)
95(.61)	90(.64)	39(.52)	60(.59)	34(.52)	52(.58)	32(.45)
65(.60)	100(.58)	37(.47)	42(.59)	76(.49)	81(.52)	30(.38)
84(.60)	93(.50)	41(.41)	10(.51)	26(.37)	30(.31)	
92(.55)	63(.47)	16(.33)	97(.30)		83(.36)	
72(.54)		14(.32)	48(.33)			
		31(.38)				
고유치 6.43	3.38	2.95	2.26	1.73	1.32	1.28
설명비율 .22	.12	.10	.08	.06	.05	.04
누적비율 .22	.34	.44	.52	.58	.63	.67

생 1학년, 여자 중학생 1학년 각각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 1학년 전체로 보면 모르겠다는 무지요인이 요인Ⅰ로, 요인Ⅱ와 Ⅲ은 외적 통제 지각 요인으로 다른 사람에 의한 요인(Ⅱ),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요인(Ⅲ)이 나왔다. 나머지 네 요인이 모두 내적 통제 지각 요인으로 요인Ⅳ는 잘못된 결과가 내 잘못이다, 요인Ⅴ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 요인Ⅵ은 좋은 결과는 자신에 달려있다, 요인Ⅶ은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요인으로 나뉘어졌다. 1학년 남자 중학생의 경우 요인Ⅰ은 좋은 결과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내용과 미래 계획과 관련된 내적 통제 요인이 함께 나왔으며 요인Ⅱ와 Ⅲ은 외적 통제 지각 요인으로 다른 사람에 의한 외적 통제(Ⅱ),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다(Ⅲ) 외적 통제 지각 요인이 산출되었다. 또 요인Ⅳ와 Ⅴ는 내적 통제 요인으로 잘못된 결과가 자신의 탓이라고 보는 요인(Ⅳ)과 자신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Ⅴ)는 요인이었다. 모르겠다는 무지요인은 요인Ⅵ으로 나왔으며 요인Ⅶ은 내적 합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여자 중학생의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한 외적 통제 지각이 요인Ⅰ로 부각되고 무지요인은 요인Ⅱ로 나왔다. 다시 요인Ⅲ이 외적 통제 요인

으로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 네 요인 즉 요인 Ⅳ, Ⅴ, Ⅵ, Ⅶ이 모두 내적 통제 지각 요인으로 자신이 원하는대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요인Ⅳ), 내가 원하는대로 다른 사람을 하도록 할 수 있다(Ⅴ), 자신이 하기에 따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Ⅵ) 그리고 노력하면 원하는대로 된다(Ⅶ)로 나타났다.

중학생 3학년에 대한 결과

표10, 표11, 표12에 중학교 3학년 전체, 남자중학생 3학년, 여자 중학생 3학년 각각의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보면 내적 통제 지각 요인이 요인Ⅰ과 요인Ⅱ, 즉 자신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Ⅰ)와 부모, 가족과 관련한 내적 통제 지각요인(Ⅱ)이 산출되었다. 다른 사람 관계에서 일어난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무지요인은 요인Ⅲ으로 나왔으나 운동과 학습 관련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무지요인은 요인Ⅵ으로 구분되었다. 요인Ⅳ는 잘못된 결과가 자신의 잘못이라는 내적 통제 요인, 요인Ⅴ는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외적 통제 지각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남자 중학교 3학년에서는 모르겠다는 무지요인이 요인Ⅰ로 부각되었으며 부모, 가족과 관련된

표10. 중학교 3학년 전체에 대한 요인구조 ( ) 형태계수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요인Ⅴ	요인Ⅵ	요인Ⅶ
α=.66	α=-.05	α=.68	α=.72	α=.56	α=.62	α=.67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58(.66)	26(.63)	99(.72)	94(.69)	16(.52)	75(.57)	65(.80)
42(.55)	9(.56)	78(.69)	83(.60)	41(.51)	96(.57)	84(.70)
45(.55)	32(.32)	85(.54)	73(.54)	23(.45)	63(.45)	92(.44)
60(.54)	14(-.35)	93(.38)	64(.35)	27(.43)	100(.33)	72(.39)
48(.53)	31(-.35)	90(.36)		37(.37)		
76(.42)	35(-.51)			66(.34)		
10(.40)	39(-.64)					
고유치 6.14	3.62	3.14	1.62	1.39	1.23	1.05
설명비율 .28	.16	.14	.07	.06	.06	.05
누적비율 .28	.44	.58	.65	.71	.77	.83

표11. 남자 중학생 3학년에 대한 요인구조 ( ) 형태계수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요인Ⅴ	요인Ⅵ	요인Ⅶ
α=.68	α=-.20	α=.55	α=.63	α=.48	α=.64	α=.64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78(.71)	26(.69)	60(.64)	65(.79)	39(.31)	52(.87)	74(.68)
99(.65)	9(.63)	58(.57)	84(.75)	66(.52)	81(.62)	95(.67)
90(.57)	35(-.56)	42(.57)	72(.52)	16(.50)	46(.54)	
85(.57)	39(-.58)	30(.50)		27(.46)		
93(.56)		45(.37)		41(.41)		
				31(.38)		
고유치 5.26	4.23	3.34	2.01	1.78	1.67	1.38
설명비율 .18	.14	.11	.07	.06	.06	.05
누적비율 .18	.32	.43	.50	.56	.62	.67

표12. 여자 중학생 3학년에 대한 요인구조 ( ) 형태계수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요인Ⅴ	요인Ⅵ	요인Ⅶ
α=.71	α=.03	α=.73	α=.64	α=.56	α=.64	α=.43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문항번호
96(.65)	39(.67)	94(.75)	65(.82)	42(.77)	52(.74)	45(.57)
63(.64)	14(.54)	73(.66)	84(.70)	60(.56)	46(.72)	48(.54)
75(.63)	31(.46)	83(.52)	92(.49)	58(.53)	81(.52)	97(.50)
93(.53)	35(.41)	64(.39)	95(.36)	76(.32)		34(.31)
90(.51)	9(-.59)	5(.31)				10(.33)
100(.47)	26(-.59)	101(.35)				
69(.35)		32(.33)				
78(.32)		30(.30)				
고유치 7.25	3.86	3.34	1.77	1.61	1.53	1.31
설명비율 .25	.13	.12	.06	.06	.05	.05
누적비율 .25	.38	.50	.56	.62	.67	.72

내적 통제 지각이 요인Ⅱ로 나왔다. 요인Ⅲ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는 내적 통제 지각으로 해석되며 선생님에 의한 외적 통제 지각은 요인Ⅳ로,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이유를 알 수 없거나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내용이 요인Ⅴ로 나왔다. 요인Ⅵ은 대인관계의 좋은 결과가 자신의 행동때문이다라는 내적 통제 요인이었으며 요인Ⅶ은 친구에 의한 외적 통제 지각이었다.

여자 중학교 3학년에서도 역시 요인Ⅰ은 모르겠다는 무지요인이었다. 요인Ⅱ는 가족 마음대로 한다는 외적 통제 요인이었고 요인Ⅲ은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나에게 달려있다는 내적 통제 지각이었다. 요인Ⅳ는 선생님이나 친구에 의한 외적 통제 지각, 요인Ⅴ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는 내적통제 지각, 요인Ⅵ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보는 내적 통제 지각 그리고 요인Ⅶ은 미래 계획에 대한 내적 통제 지각으로 해석되었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요인 구조 변화

남녀 합친 전체로 보았을 때, 국민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모르겠다는 무지요인이 요인Ⅰ로 나왔으나 중학교 3학년에 가면 무지요인이 요인Ⅲ과 요인Ⅵ으로 분리되어 나왔다. 또 국민학교 5학년에서는 요인Ⅱ와 요인Ⅲ이 내적 통제 지각 요인으로 나왔으나 중학교 1학년에서는 요인Ⅱ와 Ⅲ이 외적 통제 지각 요인으로 내적 통제 요인보다 먼저 나왔다. 중학교 3학년에 가서는 요인Ⅰ과 Ⅱ가 내적 통제 요인으로 나오고 요인Ⅲ이 무지요인으로 나왔다. 따라서 국민학교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잘 모르겠다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가 중학교 3학년에 가면서 내적 통제 지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학교 5학년에서 잘 모르겠다 다음에 내적 통제 요인이었다가 중학교 1학년에 가서는 외적 통제로 지각하다가 중학교 3학년에 가서 내적 통제 지각으로 다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아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요인구조의 변화를 보면 국민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는 요인Ⅰ로 내적 통제 지각 요인이 나왔으나 중학교 3학년에서는 요인Ⅱ와 Ⅲ에서 내적 통제 지각 요인이 나타났다. 또 잘 모르겠다는 무지요인이 국민학교 5학년에서는 요인Ⅱ로, 중학교 1학년에서는 뚝 떨어져 요인Ⅵ으로,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서는 요인Ⅰ로 부각되었다. 외적 통제 지각 요인도 국민학교 5학년에서는 요인Ⅴ와 요인Ⅶ에서 보이나 중학교 1학년에서는 요인Ⅱ와 Ⅲ으로 크

게 나오다가 중학교 3학년에 가서 다시 요인Ⅳ와 Ⅴ에서 볼 수 있다.

여아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요인구조를 보면 국민학교 5학년에서 내적 통제 지각 요인이 요인Ⅰ과 요인Ⅲ에 나왔으나 중학교 1학년에서는 요인Ⅳ, Ⅴ ,Ⅵ으로 뒤에 나왔으며 중학교 3학년에서도 요인Ⅲ, Ⅴ, Ⅵ에서 내적 통제 지각 요인을 볼 수 있다. 또 잘 모르겠다는 무지요인은 국민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는 요인Ⅱ로 나왔으나 중학교 3학년에서는 요인Ⅰ로 부각되었다. 외적 통제 지각은 국민학교 5학년에서는 요인Ⅳ와 Ⅴ에 나왔으나 중학교 1학년 여아에서는 요인Ⅰ과 요인Ⅲ에서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서는 요인Ⅱ와 요인Ⅳ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여아의 경우 요인Ⅱ에서 가족과 관련된 외적 통제 지각 요인이 나타난 반면 중학교 3학년 남아의 경우 요인Ⅱ에서 가족과 관련하여 내적 통제 지각 요인이 발견되고 있다.

논 의

본 연구결과 첫째, "모르겠다"는 무지요인이 중학교 3학년까지 일관되게 추출됨으로서 아동의 통제 지각에서 내외 통제 차원이외에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다는 차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국민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에 이르는 청소년들에게 내외 통제 지각 개념 및 측정에서 무지요인의 의미는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Connell(1985)이 지적하였듯이 내외 통제 지각의 발달적 측정에서 무지요인이 첨가됨으로서 통제 소재 지각의 발달과정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무지요인이 있음으로 해서 발달과정중 언제부터 통제 소재를 내외로 지각하는지,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통제 소재를 모르겠다는 정도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또한 모르겠다는 정도와 내외 통제 지각이 발달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제 지각에서 아동이 "왜 그와같은 결과가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모르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으로 좀더 분석이 필요하다. 단순히 통제 소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모르겠다"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자아평가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구별하고 이와 관련된 환경적 조건이나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본 연구결과 내적 통제 요인이나 외적 통제 요인이 서로 구별되어 나오기는 하나 각각이 통합된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고 있지 않다. 즉 내적 통제 요인은 잘못된 결과에 대한 내적 통제, 좋은 결과에 대한 내적 통제, 자신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을 표시하는 내적 통제 등으로 요인이 나뉘어 추출되고 있으며 외적 통제 요인은 다른 사람에 의한 외적 통제, 내가 해봐도 소용없다는 무력함과 관련된 외적 통제 등으로 구분되어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통제 요인과 자기 통제 요인으로 크게 두 요인으로 구분되어 추출된 Walters와 Klein(1980)의 연구나 내외 통제 문항이 혼합되어 여러 요인으로 산출된 이훈구(198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에 대한 내적 통제를 구분하여 발달과정을 다룬 Crandall등(1965)의 연구와 Newhouse (1974)의 연구, 그리고 Connell(1985)의 요인분석결과에 나타난 일반 영역에서 부적 결과에 대한 내적 통제 요인, 긍정적 결과에 대한 내적 통제 요인이 추출된 점은 본 연구의 내적 통제 요인의 구분과 일부 같은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내외 통제 요인이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 요인으로 나뉘어진 것으로 보면 내적 통제 지각이나 외적 통제 지각이 하나의 동질적인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요인으로 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분화된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다루고 측정할 수 있는 내외 통제 지각에 대한 개념화나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연령 증가에 따른 요인구조의 변화를 보면 중학교 1학년까지는 무지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국민학교에서 37%, 중학교 1학년은 28%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에서는 무지요인이 14%를 설명하는 제 3 요인으로 나타나면서 요인Ⅰ, Ⅱ의 44%가 내적 통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는 아동이 나이들어가면서 통제 소재의 귀인을 "모르겠다"에서 "안다"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제 소재를 모르겠다가 아니고 명확히 어딘가에 귀인시킬 수 있다는 것은 즉 안다는 것은 자신의 수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본 규칙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Avery와 Ryan (1984, 재인용)은 적응행동에서 필요한 조건으로 간주한 바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르겠다는 설명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적절한 발달변화로 생각된다.

또한 국민학교에서는 내적 통제 요인이 무지요인 다음으로 요인Ⅱ, Ⅲ으로 설명비율이 높았으나 중학교 1학년에 가면 요인Ⅱ, Ⅲ이 외적 통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는 다시 중학교 3학년에 가면 요인Ⅰ, Ⅱ가 내적 통제 지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출되고 있다. 중학교 1학년경에 외적 통제 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출된 선행연구(Nowicki, 1976)가 있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국민학교에서부터 같은 발달경향을 보인 선행연구를 찾을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 지각에서 외적 통제 지각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내적 통제 지각으로 돌아오는 발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 왜 외적 통제 지각이 높아지는 것일까.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1학년이라는 특수상황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선택이나 진로가 자신의 결정보다는 여러 다른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외적 통제 지각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 사람이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는 시점에 있을 때도 내적 통제 지각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한 연구들(Wendland, 1973; Kiehboauch,1967)이 있다. 중학교 1학년은 3학년보다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시기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중학교 1학년에 외적 통제 지각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내외 통제 지각의 발달은 아동이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건 더 나아가서는 시대적 경험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남녀 발달에는 성차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아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내적 통제 요인이 외적 통제 요인보다 설명비율이 큰 요인으로 추출된데 반하여 여아의 경우에는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내적 통제 요인보다 외적 통제 요인이 설명비율이 큰 요인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가족과 관련한 요인에서 남아의 경우 가족이 의견을 반영해준다는 식의 내적 통제로 지각하는 반면 여아의 경우 가족일에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외적 통제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외 통제 지각의 성차를 다룬 몇몇 선행연구들(Rotter,1966; Mcginnies, Nordholm, Ward & Bhanthumnavin, 1974)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나 또 다른 연구들(이훈구, 1980; 전경미, 1983; Nowicki & Walker, 1974)과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 문화내에서 남아존중사상이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사회화 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같은 가족이라는 대상을 남아 여아가 다르게 지각하는데서 바로 가족내에서 사회화 경험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아동의 내외 통제 지각의 개념화 및 측정에서 "모르겠다"는 무지차원을 포함함으로서 통제 지각의 발달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과정에서는 내외 통제 지각이 내적 통제에서 외적 통제 그리고 다시 내적 통제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외 통제 지각 요인이 상황과 내용에 따라 분화된 양상을 보인 것 또한 내외 통제 지각 측정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분화된 각각의 요인이 내외 통제 지각 내에서의 비중이라든지 관계의 분석등은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김선미(1994). 아동의 내외 통제 소재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성희(1990).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 통제 신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이천(1987). 내외재적 통제의 소재와 학업성취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수남(1990). 아동의 통제 소재에 따른 지각된 유능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선주(1988).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훈구(1980). 내외 통제성: 한국 초 중 고 학생의 내외 통제 경향성.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 5 집**, 41-59.

전경미(1983). 아동의 내외 통제 신념이 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현주(1981). 내외재적 통제와 도덕적 판단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braham, K. G. & Christopherson, V. A.(1985). Perceived competence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Parent antecedents and relation to locus of contr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 343-351.

Avery, R., & Ryan, R. M.(1984). Concomitants of achievement - aptitude discrepancie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Rochester.

Bialer, I.(1961). Conceptualization of success and failure in mentally retarded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29*, 303-320.

Bradley, R. H. & Webb, R.(1976). Age-related differences in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in three behavior domains. *Human development, 19*, 49-55.

Brim, O. G. Jr.(1974). The sense of Personal Control over One's Lif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LA.

Brown, R.(1990). The construct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social dimension of the Brown locus of control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0*, 377-382.

Connell, J. P.(1985). A new 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control. *Child Development, 56*, 1018-1041.

Crandall, V. C., Katkovsky, W., & Crandall, V. J.(1965). Children's beliefs in their control of reinforcements in intellectual academic achievement behaviors. *Child Development, 36*, 91-109.

Davis, W. L. & Phares, E. J.(1967).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determinant of information seeking in a social influence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35,* 547-561.

Ferguson, B. & Kennelly, D.(1974).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perceptions of authority figures. *Psychological Reports, 34,* 1119-1123.

Houston, B. K.(1972). Control over stress, locus of control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249-255.

James, W. H.(1965). The Application of Social Learning Theory to Educational Processes. Paper presented at a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alis.

Kiehlbauch,J. B.(1967). Selected changes over-time in internal-external control of expectancies in a reformatory pop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Lefcourt, H.(1976). *Locus of Control.* N.Y.: Wiley.

Lefcourt, H. M.(1982). *Locus of Control: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2nd ed.).*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Lefcourt, H. M.(1992). Durability and impact of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Psychological Bulletin, 112(3),* 411-414.

Lifshitz, M. & Ramot, L.(1978). Toward a framework for developing children's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implications from the kibbutz system. *Child Development, 49,* 85-95.

Mcginnies, E., Nordholm, L. A., Ward, C. D., & Bhanthumnavin, D. L.(1974). Sex and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ived locus of control among students in five countr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3),* 451-455.

Newhouse, R.(1974). Reinforcemen responsibility differences in birth order, grade level, and sex of children in grade 4, 5 and 6. *Psychological Reports, 34,* 699-705.

Nowicki, S. (1976). Facter structure of locus of ontrol in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9,* 13-17.

Nowicki, S. & Brissett, M.(1973).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nd reactive to frust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35-44.

Nowicki, S. & Duke, M. (1974). Preschool and primary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10,* 874-880.

Nowicki, S. & Strickland, B.(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48-154.

Nowicki, S. & Walker, C.(1974). The role of generalized and specific expectancies in determining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4,* 275-280.

Omizo, M. M., Omizo, S. A., & Michael, W. B. (1987). Relationship of locus of Control inventory for three achievement domains to two other locus of control measures: a construct validity stud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7,* 737-742.

Perk, W.(1969). Age changes and correlates of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s. *Psychological Reports, 25,* 856.

Phares, E. J.(1976). *Locus of Control in Personality Morrison.* N.J.: General Learning Press.

Piaget, J. & Inhelder, B.(1975). *The origin of*

the Idea of Chance in Children. N.Y.: Basic Book, Inc.

Pittman, T. S.(1979). Effects of amount of helplessners training and I-E locus of control on mood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9-47.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whole No.609).*

Schriberg, L.(1974). Descriptive statistics for two children's social desirability scales, general and text anxiety and locus of control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34,* 863-870.

Sherman, L. W. & Hoffman, R. J.(1980). Achievement as a momentary event as a continuing stste and locus of control.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1,* 1159-1166.

Skinner, E. A.(1995). *Perceived Control, Motivation, & Cop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Skinner, E. A. & Connell, J. P.(1986). Control understanding: Suggestions for a developmental framework. In M. M. Baltes & P. B. Baltes(Eds.), *The Psychology of Control and Aging* (pp.35-69).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Taub, S. & Dallinger, S.(1975). Reward and purpose as incentives for children differing in locus of control expectancies. *Journal of Personality, 43,* 179-195.

Waters, L. H. & Klein, A. E.(1980). A cross-validated factor analysis og the Nowicki-Strickland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0,* 1059-1064.

Watters, D. A., Thomas, B. H., & Streiner, D. L.(1990). Factor analysis of the Nowicki-Strickland locus of control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0,* 515-523.

Weisz, J. R.(1980). Developmental change in perceived control: recognizing noncontingency in the laboratory and perceiving it in the world. *Developmental Psychology, 16,* 385-390.

Weisz, J. R.(1981). Illusory contingency in children at the state fair.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81-489.

Weisz, J. R. & Stipek, D. J.(1982). Competence, contingency and the development of perceived control. *Human Development, 25,* 250-281.

부록1.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및 상대도수분포

번호	M	SD	상대도수분포			
			1	2	3	4
5	1.61	0.86	59.3	25.4	10.5	4.8
9	2.16	0.87	24.1	43.1	25.7	7.2
10	2.81	0.93	9.2	26.7	38.3	25.8
11	2.99	0.91	7.6	18.8	40.5	33.0
14	2.29	0.98	25.1	33.6	28.3	13.0
16	3.04	0.94	8.3	17.0	36.8	37.9
23	3.25	0.88	6.0	11.5	33.3	49.2
26	2.35	0.91	17.6	42.0	28.0	12.4
27	2.35	1.02	25.1	30.5	28.7	15.7
30	2.11	1.01	33.9	32.3	22.2	11.6
31	2.55	0.98	17.6	28.1	36.4	18.0
32	1.80	0.91	46.8	32.2	14.8	6.2
34	2.66	0.94	12.3	30.1	37.1	20.4
35	3.12	0.93	7.4	15.7	34.5	42.5
37	3.25	0.90	6.2	12.1	31.1	50.6
38	1.95	1.00	42.3	31.2	15.5	11.0
39	2.95	0.91	7.6	20.9	40.6	30.9
41	3.08	0.93	8.4	14.2	38.2	39.3
42	2.78	0.99	13.5	22.4	36.8	27.3
43	2.13	0.94	28.9	39.2	21.9	10.0
45	2.66	1.09	19.5	23.2	28.7	28.5
46	1.82	0.86	42.3	39.1	13.2	5.4
47	2.88	0.89	7.3	24.5	41.2	27.1
48	2.82	1.04	14.9	19.6	33.9	31.6
52	1.89	0.88	38.1	40.4	15.4	6.1
54	1.65	0.85	54.8	31.0	9.1	5.2
58	2.48	0.98	19.9	28.2	36.3	15.6
60	2.53	1.00	18.6	28.6	33.8	19.0
63	2.95	0.98	10.5	19.3	34.4	35.8
64	1.94	0.90	36.0	41.7	14.6	7.7
65	3.29	0.91	6.6	10.9	29.4	53.1
66	2.48	1.01	20.1	30.1	31.9	18.0
69	3.11	0.94	8.3	14.4	34.7	42.5
70	1.85	0.90	42.4	36.9	14.3	6.4
72	3.18	0.85	5.2	12.9	40.3	41.6
73	1.75	0.92	50.6	30.5	11.9	7.0
74	2.99	1.02	11.5	17.9	30.8	39.8
75	2.98	0.99	11.1	16.2	36.0	36.6
76	2.91	0.94	9.4	21.4	38.4	30.8
78	2.65	1.01	16.3	26.5	33.5	23.7
79	2.41	1.08	26.1	27.0	26.6	20.4
81	1.89	1.00	45.3	31.1	13.1	10.5
83	1.84	0.89	42.0	38.3	12.9	6.7
84	3.38	0.83	4.5	9.0	29.8	56.7
85	2.58	1.03	18.1	27.8	31.3	22.8
86	1.67	0.86	54.4	28.6	12.3	4.7
88	2.22	0.98	26.7	36.8	24.1	12.4
90	2.60	0.97	14.9	30.0	35.4	19.8
92	3.21	0.92	7.8	10.8	33.3	48.2
93	2.79	0.97	11.8	24.3	36.7	27.2
94	1.70	0.94	55.7	26.2	10.3	7.8
95	3.07	1.01	10.7	15.1	30.5	43.7
96	2.90	0.97	11.6	17.7	39.5	31.2
97	2.36	1.01	23.3	33.1	27.9	15.7
99	2.67	0.99	15.2	25.9	35.8	23.1
100	2.88	1.05	15.0	16.5	33.9	34.6
101	1.84	1.01	49.2	29.0	10.8	11.1

부록2. 일차 요인분석결과 선정된 문항번호와 내용

문항번호	내 용
5	누구라도 공부를 열심히만 하면 시험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많은 경우에 부모들은 자식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준다.
10	정말로 원하면 원하는 일이 일어난다.
11	벌을 받을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나는 종종 벌을 받는다.
14	어떤 일에서나 부모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은 어렵다.
16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
23	내 또래의 아이가 나를 때리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6	우리 부모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나를 도와준다.
27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 대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30	아이들은 노력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될 수가 있다.
31	집에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32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4	친구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35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우리집에서는 만들어 주지 않는다.
37	다른 친구들이 모두 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38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일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9	식구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은 별로 들어주지 않는다.
41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42	나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3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는 내가 그럴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45	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했기 때문이다.
4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할 수 있다.
48	내 또래의 아이들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52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이다.
54	커서 무엇이 될 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8	내 또래의 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60	어린이는 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63	내가 운동에서 이겼을 때, 왜 이겼는지를 짐작할 수 없을 때가 많다.
64	내가 성공하지 못할 때, 그것은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의 잘못이다.
65	내가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항번호	내 용
66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69	내 성적이 높게 나왔을 때 나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70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72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인기가 높다.
73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했다면 그것은 내 탓이다.
74	학급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인기있는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해야만 될 것이다.
75	운동경기에서 내가 졌을 때, 왜 졌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76	내 생활에서 일어날 일들을 나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다.
78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79	내가 공을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이다.
81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83	내가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할 때, 그것은 내 자신의 잘못이다.
84	나의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85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86	어느 운동이건 내가 연습을 충분히 하면 나는 잘 할 수 있다.
88	다른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90	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92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아마도 나는 많은 친구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93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그와같은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94	내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잘못이다.
95	친구들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한다면, 인기있는 아이들과 친해져야만 한다.
96	운동경기에서 내가 이기지 못했을 때, 내가 왜 이기지 못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97	앞으로 내 생활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
99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 왜 나를 좋아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00	내 점수가 나쁘게 나왔을 때, 나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01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느냐, 아니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韓國心理學會誌 : 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1996. Vol. 9, No. 1, 198-216.

A factori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with children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Kyoung Sook Choi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in terms of factor analysis with 358 fifth grad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446 first grade and 426 third grade students in junior high school.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 in this study included unknown dimension, and cognitive, social physical and general behavioral domains. Two steps of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scale.

As a result, a clear unknown factor was found in all the age groups. This result suggests that unknown dimension is required in order to analyze developmental trend in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with children. In addition, the result revealed that decrease in internal locus of control from elementary school to the first grade students in junior high school was found while increase in internal locus of control from the first grade to the third grade in junior high school was shown. The decrease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in the first grade of junior high school was interpreted in terms of Korean social and educational systems.